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주최: 대한언어학회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같은 발음 다른 뜻 영어 낱말들의 온글(세종 온말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

양 창섭
(전 순천향대)

초록

영어 온글 표기 맞춤법을 연구하면서, 난해한 분야를 만났다. 영어 낱말의 경우, 발음은 같은데 뜻을 달리하는 낱말들은 철자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는 음절 단위 보다는 낱말 단위로 서로 다른 발음과 철자를 익혀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표기 체계라 할 수 있다.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한다면 같은 발음을 다르게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의 낱말들이 같은 발음을 하나 뜻을 달리할 때 철자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영어의 로마자 표기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오히려 사용에 있어서 장점으로 활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온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첫 닿소리, 가운데 홀소리, 그리고 끝 닿소리와 함께 또는 없이 구성된 한 음절은 한 발음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발음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영어 낱말들을 온글로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필자가 먼저 진단하고 그 표기 방법의 하나를 이 학술 발표 논문에서 제안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에 따른 편리와 연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표기를 위한 한글과 온글 표기 맞춤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여 보다 편리하고 좋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

Abstracts

On the process of studying Ongeul spelling for English, I faced a difficult fact. In English words, they use different spellings for the different words even for the words that pronounce the same. So, it is fine to say that word unit instead of syllable unit is better for English to learn pronunciation and spelling, since different spellings for the same pronunciations are not possible for the syllable unit. It is weak point to use different spellings for the words that pronounce same in English, but in reality it is wise method to differentiate the same words in visual way. However, it is quite different case if these words are to be written in Ongeul system because there is one pronunciation in a syllable that consisted of first consonant, second vowel and with or without last consonant. Therefore it is not easy to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How to inscribe the English words that pronounce same but spell different?'. I set up this problem on this paper first to suggest in the academic conference, but the methods of inscription c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convenience of using by the people and the way of study by the scholars. I hope many scholars participate in this field to find better and more convenient ways for this purpose.

1. 서론: 문제점

영어 낱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장점 중의 하나는 같은 발음이지만 뜻을 달리하는 두 개의 낱말들이 있을 경우, 이 두 낱말들의 철자를 다르게 표기하여 같은 발음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son과 sun의 경우, 두 낱말들을 다 /sʌn/으로 발음한다. 가운데 홀소리 /ʌ/는 온글 표기법에서 제안한 홀소리 도표 의하면 /ㆍ/에 해당하는데, 두 영어 낱말들의 실제 영어 홀소리 표기는 아들을 의미하는 son의 경우는 <o>를 사용했고, 해를 의미하는 sun의 경우는 <u>를 사용했다. 영어 표기를 위한 로마자 <o>의 기본 소리값은 /o/ 또는 /ɔ/이고 <u>의 기본 소리값은 /u/이다. 그러므로 온글 표기법에 따르면 영어 낱말 son은 /손/ 또는 /쇤/으로 발음하고, sun은 /순/으로 발음해야 할 것이나, 실제 영어권에서는 두 낱말 모두 sʌn/ᄉᆞᆫ/이라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예를 통해서 볼 때, 영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영어 발음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표기 값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특성과 함께, 뜻은 다르나 발음이 같을 경우 표기 값을 달리하는 특성이 더해져서, 영어는 음절 단위가 아니라 낱말 단위로 발음을 익히는 것이 편리한 성질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처럼 똑같은 발음을 하는 둘 또는 세 낱말들을 철자를 달리하여 눈으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낱말들의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둘 다 /seil 세일/이라 발음하고 sail과 sale로 표기하는 경우, /hiər 히얼/라 발음하고 here와 hear로 표기하는 경우, /hil 힐/이라 발음하고 hill, heal, heel 이라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 some과 sum은 /sʌm 숨/, to와 two와 too는 /tu 투/, prophet과 profit은 /práfit 프ᄅᆞ라ᄋᆡᆯ/, Luke와 look는 /luk 뤅/, for와 four는 /fɔːr 뿔/, full과 fool은 /ful 뚤/이라 발음한다. 이와 같이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달라 철자를 다르게 표기하여 구별하는 낱말들이 필자가 찾은 것만 해도 수십 개이다.

이처럼 영어 낱말들의 경우에는 같은 발음이라도 다른 철자가 보여주는 시각적 차이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낱말들을 온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다른 철자로 똑같은 발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발음들을 대응하는 철자 표기로 모두 표기가 가능한 온글 표기법이 표기능력이 부족한 로마자 영어 표기법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로마자로 표기한 'You are like my son.'이라는 영어 문장과 'You are like my sun.'이라는 영어 문장을 두고 볼 경우, 앞 문장은 '너는 내 아들과 같다' 그리고 뒷 문장은 '너는 나의 태양과 같다'라는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을 온글로 표기하면, 앞 문장도 '유 앓 ᄯᅡᆨ 마이 ᄉᆞᆫ.' 그리고 뒷 문장도 역시 '유 앓 ᄯᅡᆨ 마이 ᄉᆞᆫ.'이 되어, '너는 나의 ᄉᆞᆫ(아들)과 같다.'라는 뜻과 '너는 나의 ᄉᆞᆫ(태양)과 같다.'라는 뜻이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위와 같이 로마자 영어 낱말들을 온글로 표기할 때 생기는 문제, 곧, 같은 발음이나 뜻을 달리 하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낱말들을 서로 다른 표기로써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2. 본론

위 서론에서 제기한 표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적용해 보았다. 먼저 같은 발음이나 발음의 길이가 짧은 소리와 긴 소리로 나누어 발음하는 현상을 표기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같은 발음을 하는 두 낱말 중 하나를 가장 비

슷한 홀소리로 대치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유사한 소리값을 유지시키는 범위 안에서 음절의 수를 늘이거나 줄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닿소리의 경우 보통소리와 된소리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3낱말들이 같은 발음을 할 때 표기하는 방법들이다.

2.1. 발음의 길이가 짧은 소리와 긴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표기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짧은 소리와 긴 소리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 낱말 did/did/와 deed/di:d/는 둘 다 온글 표기로 '딛' 또는 '디드'라고 표기할 수 있다. 이 중에 /did/는 /딛/라고 표기하고, /di:d/는 /디드/ 또는 /디인/ 또는 /디이드/라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중에 필자는 /did/는 /딛/ 그리고 /di:d/에 대한 온글 표기를 /디인/를 알맞은 표기로 선택했다. 필자가 /did/를 /딛/라 표기하고 /di:d/를 /디인/라 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딛>, <딧>, <딪>, <딫>, <딭> 다섯 음절의 발음이 모두 같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곧 받침으로 사용하는 ㄷ, ㅅ, ㅈ, ㅊ, ㅌ은 한 음절을 끝내는 끝소리로서 해당 음절의 소리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닫는 위치가 같은 위 다섯 끝소리들은 결국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섯 끝소리 ㄷ, ㅅ, ㅈ, ㅊ, ㅌ들 중에 이론적 타당성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르면 'ㅅ'을 끝소리로 하여 <딧>이라 표기하고, 또 다른 경향은 이론적으로 위 다섯 음절을 발음할 경우 같은 위치에서 닫는 역할을 대표하는 것은 'ㄷ'이라 보아 <딛>이라 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한 음절이 닿소리로 끝나는 경우, 그 끝소리는 해당 음절의 소리를 닫는 역할을 하여 한 음절로 발음하기도 하고, 닫지 아니하여 해당 끝소리는 또 다른 작은 음절이 되어 두 개의 발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첫소리가 'd', 가운데 소리가 'i', 그리고 끝소리가 'd'인 'did'라는 한 음절의 경우, 이 음절의 끝소리가 소리를 닫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어 표기 방식으로 하면, <딧> 또는 <딛>이라 쓴다. 또 하나는 끝소리를 닫지 않는 소리를 내는데 이는 한 음절 <딛>보다는 두 음절 <디드>에 가까운 발음이되 앞 음절 <디>와 뒤 음절 <드>가 대등한 소리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뒤 음절 <드>가 앞 음절 <디>의 1/3 또는 1/4 정도의 소리 값을 나타낸다. 이를 표기로 나타낸다면 <디ㄷ> 또는 <딛으>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딛>, <딧>, <딪>, <딫>, 그리고 <딭>은 끝소리를 닫아 한 음절로 발음하여 모두 같은 소리 값이 되어, 위 다섯 음절의 끝소리 값이 살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소리 값이 살아나는 경우는, 해당 음절이 명사, 대명사들의 경우는 그 명사 또는 대명사 뒤에 따르는 조사에 나타나고,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의 경우, 어간 음절의 끝소리의 소리 값은 어미 음절에서 살아나게 된다. 예를 들면, <꽃>이라는 1음절 명사는 <꼿> 또는 <꼳>이라 발음하는데, 조사 ~이, ~을, ~에, ~은 등이 뒤에 따르면 <꽃>의 끝소리 'ㅊ'이 조사에 소리 값이 나타나 /꼬치/, /꼬츨/, /꼬체/, /꼬츤/이라고 발음한다. 또, '샘이 깊다'에서 형용사 원형 <깊다>는 /깁다/라고 발음하는데, 어간 <깊>의 끝소리 'ㅍ'의 소리 값이 살아나는 경우는, 어미 '~다'가 활용되는 경우로, ~은, ~으니, ~으면, ~어라 등의 어미들로 활용케 되면 /기픈/, /기프니/, /기프면/, /기퍼라/ 등으로 발음하여, 어미의 첫소리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는 낱말의 활용이 한국어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어처럼 명사나 대

명사에 따르는 조사 기능이 없다. 다만 한 낱말의 끝 음절과 이어지는 다음 낱말의 첫 음절 사이에서 연음에 따른 발음현상이 위의 예처럼 나타나고는 있다. 예를 들면, 영어 문장 'The book is mine.'의 온글 표기는 '떠 붘 이쯔 마인.'인데, 여기서 '붘 이쯔'라는 두 낱말들이 연음으로 발음하면 /부키쯔/라고 발음하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낱말의 끝소리를 닫는 우리말의 특성과 닫지 않는 영어의 특성 사이에서 필자가 영어의 특성을 살려 표기할 수 있는 온글 표기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결국 이들 문제의 해결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곧, 영어를 온글로 표기할 때는 각 낱말 끝 음절의 끝소리 값은 닫거나 열린 소리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 다섯 종류의 음절들을 '딛, 딧, 딪, 딫, 딭'라 표기하고, 닫힌 끝소리인 경우 이들 모두 /딛/이라 발음하는데, 열린 끝소리인 경우 '디ㄷ, 디ㅅ, 디ㅈ, 디ㅊ, 디ㅌ'라 발음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어를 위한 한글 표기에서는 대표 소리 값 외에 다른 끝소리들은 소리 값이 죽어 있으나, 영어를 위한 한글 표기에서는 끝소리 값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끝소리 표기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발음의 길이가 짧은 소리와 긴 소리를 나타내는 표기**를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표기에 해당하는 영어 낱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짧은 소리 : 긴 소리	**짧은 소리 : 긴 소리**
did/딛/ : deed/디인/	dip/딮/ : deep/디잎/
nea/니/ : knee/니이/	nil/닐/ : kneel/니일/
Luke/뤀/ : look/루욱/	linn/뤈/ : lean/뤼인/
lid/띋/ : lead/뤼읻/	rich/뗘츄/ : reach/뗘이츄/
rid/쩓/ : read/뗘읻/	mid/믿/ : mead/미읻/
bit/빝/ : beat/비잍/	sit/씵/ : seat/씨잍/
seam/씜/ : seem/씨임/	sick/씤/ : seek/씨잌/
ship/싶/ :sheep/ 셰잎/	is/이쯔/ : ease/이이쯔/
it/잍/ : eat/이잍/	칙chick// : cheek/치잌/
piece/피스/ : peace/피이스/	full/뿔/ : fool/뿌울/
fist/뻬슽/ : feast/뻬이슽/	fill/뼐/ : feel/뻬일/
filled/뼐드/ : field/뻬일드/	fit/뼡/ : feet/뻬잍/
whit/휕/ : wheat/휘잍/	hid/힏/ : heed/히읻/
hit/힡/ : heat/히잍/	

2.2. 두 번째는 같은 발음을 하는 두 낱말 중 **한 낱말의 홀소리를 다른 하나와 비슷한 홀소리로 대치**하는 방법이다.

영어의 경우에도 같은 발음의 두 낱말들을 홀소리나 닿소리를 달리 표기하여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데는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sʌn = 손/이라 발음하는 두 낱말들은 son과 sun으로 가운데 소리인 홀소리 표기가 'o'와 'u'이다. /sʌm = 숨/이라 발음하는 some과 sum도 같은 경우이다. 'o'와 'u'의 원래 소리 값인 'ㅗ'와 'ㅜ'와는 거리가 먼 'ㆍ'를 홀소리 값으로 했는데, 양 창섭님의 온글 홀소리 표기 지침을 나타낸 도표를 보면, 'ㅗ'와 'ㅜ'의 홀소리 세로 지수의 차이는 2에 해당한다. 그리고 'ㅗ'와 'ㆍ'의 홀소리 세로지수의 차이는 3이고, 'ㅜ'와 'ㆍ'의 차이는 5인데, 'ㆍ'와 'ㅓ'의 차이는 1이다. (양 09) 두 발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소리가 비슷함을 나타낸다. 같은 발음을 다르게 표기할 때, 다른 소리의 음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어떤 원리를 적용하였는지를 설명

한 것이다.

영어 낱말 중 홀소리가 아니라 닿소리를 다르게 표기한 경우도 있다. /prʌfit/이라 발음하고 <prophet>과 <profit>이라 표기한 경우가 한 예이다. ph 발음을 f 발음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philosophy, photo, physics, graph 등에서 사용한 밑줄 친 ph표기는 모두 f발음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글이나 온글의 모체가 되는 훈민정음에서의 그 어떤 닿소리도 다른 닿소리로 대치하여 같은 발음을 표기할 수는 없다. 모든 닿소리 표기는 고유 소리 값을 나타내도록 1:1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에 맞게 개량된 한글 표기만으로는 영어를 비롯 다른 나라 언어들의 닿소리 값을 모두 다 제 소리 값을 나타내는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표기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표기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온글 표기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prʌfit 프롸펠/이라 발음하는 <prophet>과 <profit>의 경우 온글 표기로는 닿소리를 다른 유사 닿소리로 대치하지 않고 한 낱말의 홀소리 '롸'를 온글 홀소리 세로 지수 차이가 1인 '로'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이들 표기에 해당하는 영어 낱말들의 온글 표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son/손/ : sun/선/, some/솜/ : sum/섬/

(2) prophet/프롸펠/ : 프로펠/profit/

2.3. 세 번째는 유사한 소리값을 유지시키는 범위 안에서 **음절의 수를 늘이거나 줄이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한 음절로 발음하는 두 낱말들 중 하나를 두 음절로 표기하는 경우와, 두 음절로 발음하는 낱말들 중 하나를 한 음절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한 음절로 발음하는 낱말들의 예는 /for 풜/라고 발음하는 두 낱말 <for>와 <four>가 있고, 두 음절로 발음하는 낱말들의 예는 /hiər 히얼/라고 발음하는 <here>와 <hear>가 있다.

/for 풜/라고 발음하는 두 낱말 <for>와 <four>를 서로 다른 온글 표기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한 음절 발음 그대로 <풜>라 하고 다른 하나를 <퓌얼>라 표기하였는데, 홀소리가 하나인 <for>를 <풜>라 하고, 홀소리 o와 u 둘로 표기한 <four>를 <퓌얼>라 표기했다. 그리고 두 음절 /hiər 히얼/의 경우는 <here>를 <히얼>라 하고 <hear>를 ㅣ로 시작하여 ㅓ와 합하여 겹홀소리가 된 ㅕ를 써 <혈>라 표기하였다. 홀소리 /이어/와 /여/가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홀소리 조합보다도 /이어/를 가장 닮은 소리로 여겨 홀소리 <여>를 선택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낱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for/풜/ : four/퓌얼/, or/월/ : ore/외얼/

(2) hear/혈/ : here/히얼/, their/뎰/ : there/데얼/

2.4. 네 번째는 **닿소리의 경우 보통소리와 된소리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법이다.

영어의 경우 s발음은 ㅅ발음과 ㅆ발음을 아울러 s 하나로 표기한다. 한국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ㅅ발음과 ㅆ발음을 구별하여 표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s 외에는 이들을 구별해 표기할 글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s 표기 하나에 대응하는 4가지 발음들의 온글 표기에 대한 학술 논문 발표를 하였다.(12) 예를 들어 same/세임, 쎄임/, sign/사인, 싸인/, sand/샌드, 쌘드/ 등의 발음에서 보통소리 ㅅ과 된소리 ㅆ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두 개의 낱말들이 같은 발음을 하는

데 이들도 보통소리와 된소리로 똑같이 발음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cite/sait/를 /사잍/ 또는 /싸잍/이라 발음하는데 sight/sait/ 또한 /사잍/ 또는 /싸잍/이라 발음한다. sail/세일, 쎄일/과 sale/세일, 쎄일/, 그리고 soul/소울, 쏘울/과 sole/소울, 쏘울/도 같은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통된 구별법을 찾을 만큼 대상 표본이 많지 않아 온글 표기를 할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보통소리로 하고 다른 하나를 된소리로 표기하였다. 납득할 수 있는 표기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들 낱말들을 보통소리와 된소리로 나누어 표기한 예이다.

cite/사잍/ : sight/싸잍/, sail/세일/ : sale/쎄일/

soul/소울/ : sole/쏘울/

2.5. 다섯 번째는 **3낱말들이 같은 발음을 할 때의 표기하는 방법**들이다.

먼저 /rait = 롸잍/이라고 발음하는 영어 낱말이 세 종류가 있다. right(옳은), write(쓰다), rite(의식, 의례)가 그들이다. I write about right rite. 이 영어 문장을 로마자 영어로 읽을 때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 비록 같은 발음을 하는 세 낱말들이지만 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글로 표기한 문장을 보면 기겁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이 롸잍 어바웉 롸잍 롸잍.> 이들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보았다.

홀소리 ㅏ와 세로 소리지수가 1 차이가 나는 ㆍ를 써서 <롸잍>을 <뤄잍>으로 쓰면 유사한 표기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세로 소리지수가 2 차이가 나는 ㅕ를 쓴 <뗘잍>이라는 표기는 음색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또 하나는 끝소리 받침에 ㅎ을 주어 <똫잍>이라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 표기는 읽을 때 /롸힡/이라 발음하게 된다. 또 다른 표기 하나는 <롸엩>이 있다. <잍>과 <엩>에 나타난 홀소리 값의 차이는 앞선 학술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양 12) 곧 ㅣ에서 시작하여 ㅣ와 결합한 겹홀소리로서 <ㅣ+잍 = 엩>이라는 등식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stil/과 /sti:l/로 발음하는 영어 낱말 still, steel, steal들이 있다. /stil/은 온글 표기로는 /스틸/이 좋겠고, /sti:l/은 /스티일/ 또는 /스텔/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발음이 숨겨져 있다. steel이나 steal의 경우 실제 발음을 들어보면 /스티일/만이 아니라 /스티을/이라 발음하는 것이다. /스티을/은 천천히 발음하는 모양의 표기라면 /스틸/이 실제 짧은 발음의 표기에 가깝다. 곧 훈민정음 해례에서 'ㅣ에서 시작하여 ㅏ, ㅓ, ㅗ, ㅜ와 결합한 겹홀소리가 ㅑ, ㅕ, ㅛ, ㅠ'가 됨을 설명하면서 ㅣ에서 시작하여 ㅡ, ㅣ와 결합하는 홀소리는 어린아이나 지방의 어투에서 나타나지만 이들 소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 두 발음마저 펄펄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09)

위 표기에 관한 설명에 따라 다음 영어 낱말들에 대한 온글 표기에 알맞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표기들은 다음과 같다.

낱말1 표기	낱말2 표기	낱말3 표기	다른 가능한 표기들
right/ㅇ라읻/	write/ㅇᆞ읻/	rite/ㅇ라엗/	ㅇ라아읻, ㅇ라이읻
rain/ㅇ래인/	rein/ㅇ레인/	reign/옝인/	ㅇ레에인, ㅇ레이인
sin/씬/	seen/씨인/	scean/씽인/	씨이인, 씽이인
to/투/	two/투우/	too/퉁/	
cent/센트/	sent/쎈트/	scent/쎄엔트/	스엔트, 센트
still/스틸/	steel/스텔/	steal/스틸/	스팅일, 스티일
sit/씯/	seat/씨읻/	sheet/셷/	세읻
hill/힐/	heel/헬/	heal/힐/	히일, 히이일

3. 결론

영어 낱말들 중에 발음은 같은데 뜻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낱말들을 어떻게 온글로 잘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맨 먼저 해당 낱말들의 소리가 길고 짧은 바에 따라 표기 값을 달리하였다. did/딛/와 deed/디읻/, fill/옐/ feel/얘일/ 등이 그 예이다. 또 다른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리와 표기가 1:1로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로마자 영어에서는 발음에 대한 표기 규칙이 일정치 않는 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단점이 쉽게 다른 표기를 차용하여 원하는 발음 표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1:1로 정확히 발음과 표기를 대응시킬 수 있는 온글에서는 대응 규칙이 일정하여 같은 발음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발음을 다른 철자로 표기하는 영어 낱말들을 온글로 표기할 수 있기 위하여 고안해 낸 방법이 해당 낱말을 발음하는 홀소리와 가장 가까운 소리 값을 주는 법으로 제안한 것이다. 홀소리의 소리 값이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른가 하는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온글 홀소리 도표를 참조할 수 있다.(09) 영어 낱말 son과 sun의 경우, 두 낱말에서 사용한 홀소리들의 원래 소리 값에 따르면 /손/과 /순/이라 발음해야 할 것이나 모두 /sʌn = 순/이라 발음하는데, 온글 홀소리 도표에 따르면 ·와 가장 가까운 홀소리는 소리 값의 지수 차이가 1인 ㅏ와 ㅓ이다. 이 중에서 원어민이 발음하는 /sʌn = 순/ 발음은 /선/에 매우 가깝게 들리므로, son과 sun 중에 하나는 <순> 또 하나는 <선>이라 표기 값을 준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닿소리의 보통소리와 된소리로 구별하는 방법과(세일-쎄일), 홑홀소리와 겹홀소리로 구별하는 방법(히엳-혇), 그리고 음절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웯-왜얻) 등이 있다.

필자는 지금 입장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연구에 의해서 또는 다른 학자들이 연구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이에 따라 보완 또는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예상하고 싶은 그 합리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는 혹 같은 발음을 하는 낱말은 구태여 다른 표기로 나타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연구일 것이다.

미래의 세계 공용문자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훈민정음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시는 분들과 이를 사용하여 외국어 교육 및 무문자 언어 또는 익히기 어려워 힘들어 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나 민족의 문자를 개선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부터라도 익히기 쉬운 공용문자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이로써 내가 익힌 외국어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상호 교류를 통한 섬김의 장을 열어 진정한 홍익인간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여 언어학 분야의 전반에 걸쳐 발전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

어 주시는 대한 언어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단지 언어학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협력 또는 융합된 새로운 학문 또는 기술로 발전하여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대한 언어학회가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문헌

양 창섭 (2009) <훈민정음 사용법, 부제: 세종 온말 한글> 박 선영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 <한글의 세계화 - 그 가능성과 미래> 발표 자료
양 창섭 (2009) <훈민정음 사용법, 부제: 세종 온말 한글> 한국어 정보학회지
양 창섭 (2011) <영어 sh/ʃ/ 발음의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 대한 언어학회 학술대회
양 창섭 (2012) <영어 <S>에 대응하는 네 종류 발음의 온글(세종 온말 한글) 표기에 대한 연구> 대한 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자: 양창섭
소속기관: 전 순천향대학교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5-17, 010-9421-6974
e-mail: csieagles@gmail.com, chsyang@hanmail.net